

믿음을 지키라

사도 행전 22:30-23:11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1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 7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이니 8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크게 환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10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a. 믿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선교지와 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르단 루세이파(Russeifa)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용 선교사님을 12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사였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니다.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가자(Gaza)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곳을 떠나야 했고, 이후 여러 건강상의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때마다 늘 놀랍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30년 전과 비교하면 문화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고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매우 다양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접촉하지 않은 부족과 공동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천 년 전에 살았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그곳에는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여러 부족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특히 흥미로운 부족 가운데 하나가 브라질 북서부 마이시(Maici) 강 주변에 살아가는 피라항(Pirahã) 부족입니다.

이 부족에 관해 가장 흥미롭고 동시에 논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라항 부족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언어를 연구한 언어학자 다니엘 에버렛(Daniel Everett)에 따르면, 피라항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의 정확한 숫자 체계가 없으며 양을 표현할 때 ‘많다’ 또는 ‘적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방식의 시제 체계나 구체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제한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 역시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됩니다. 영적인 세계나 사후세계, 천사나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설명하는 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도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은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어떤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라한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 색깔, 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매우 다르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조금 아프게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를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실제로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만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브라질 열대우림의 한 부족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도록 부르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숫자라는 개념조차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피하며 방어하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 왜 기독교 신앙이 참이라고 믿는지를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피라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변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있든,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 있든, 아니면 편안한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의 교외 지역에 있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을 변증하려면, 선교지와 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표현은 바로 “알고자 하여(to know)”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입니다. 바울이 있고, 로마의 천부장이 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있으며, 산헤드린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유대 공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에는 모두가 따르기로 합의한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법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법과 원칙을 따라 살아왔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에 따라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진리와 영적인 실재가 그에게 온전히 계시되기

전까지,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반문합니다.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 스스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바울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상대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변증학(Apologetics)이라고 부르는 것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권력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과 지적인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Gemini는 ‘변증학(Apologetics)’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한 믿음이나 교리 또는 종교를 체계적이고 지적으로 변호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 즉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선교지가 어떤 사고방식과 세계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과 지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라항(Pirahã)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언어와 사고 체계는 숫자나 시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다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능(intelligence)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지적인 틀과 사고방식(intellectual framework)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로마와 유대 당국의 경우에는 권력 구조와 사회적 질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을 변증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권력 구조는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으며, 로마 제국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안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바울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아주 평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다면, 먼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나니아가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가, 상대방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말을 거두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가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을 치도록 명령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한발 물러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당시의 권위 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권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상대하고 있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지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한 가족이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피라한 부족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고, 눈앞의 현실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들조차 지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숫자와 수에 관한 표현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숫자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르고, 미래를 표현하는 언어적 방식 역시 우리와 다르다면 어떻게 그 진리를 전달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지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전달될 수 있는 대화의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 대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죄를 짓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까지 기꺼이 가서 그를 만나겠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Evangelism)에 접근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증(Apologetics)에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감당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먼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확함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선교지와 지적인 차원에서 연결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를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지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b. 믿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선교지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이제 바울은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이 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믿음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토라(Torah), 즉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이나 천사와 영에 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토라에는 정말 영이나 영적인 존재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실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해석은 이들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또 다른 해석은 특정한 인간 계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천사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과 영적인 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겠다. 정말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 대화의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법과 권리,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같은 세상적이고 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화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존재했던 신학적인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또 한 번 자신에게 가해질 폭력을 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통해 채찍질을 피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유한합니다. 우리의 돈도 유한합니다. 직장이나 여러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진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부모님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런 일시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히 세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분과 맺는 관계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 역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때 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관계의 본질 또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영적인 관계의 다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믿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변증할 때 그 변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관계의 다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의 다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번 주에 리나와 저는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 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윤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의 아내 제니 사모님입니다. 윤 목사님의 아버지는 1973년 애리조나에 한인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닉스 중심부에 있는 그 교회의 예배당과 친교실을 둘러보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여러 영적인 도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그 지역에 살던 많은 한인들이 캔들러를 비롯한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역 환경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목사님과 제니 사모님에게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Korean American**, 즉 한인 이민 2세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 이민 2세로 살아온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모님은 마침내 애리조나에도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단지 한인 2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관계의 다리가 세워지는 것을 원수가 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리조나에서 22년을 살면서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의 강한 손길을 통해, 그리고 마침 에드워드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COS Chino**의 한 자매님을 통해, 성령께서 이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세워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관계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 의견이 충돌하거나 논쟁하게 되었을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그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변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지와 영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 선교지가 누구이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그 선교지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피닉스 중심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BVC**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관계의 다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다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변증하는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c. 믿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교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는 결코 쉬운 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갇힌 자의 신분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여기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명령,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바로 그 선교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는 영적인 군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그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로마로 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때리라고 명령한 대제사장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부활과 복음에 대한 영적인 변증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신앙에 대해 토론할 때, 우리가 복음을 변증할 때, 훌륭한 논리로 사람의 영혼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내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와 과거의 경험, 혹은 자신의 ‘직감’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물론 우리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관계들은 종종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에서 형성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이 종종 “No”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가운데도 처음부터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는 바울의 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누구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변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인내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BVC가 복음을 담대하게 변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본문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남겨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신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흔히 헨리 포드(Henry Ford)의 말로 알려진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그들은 더 빠른 말을 원한다고 했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더 빠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존의 틀을 넘어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영생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전략을 우리가 새롭게 고안해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관계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BVC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지친 사람들이 위로를 얻으며,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변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의 다리를 세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성령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을 통해, 우리가 놓는 모든 영적인 다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말씀 나눔 질문

1.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다(Meet people where they are)”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 믿음을 변증할 때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관계를 세워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교지(Mission Field)”는 누구인가요?
4.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Take courage)”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5.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6. 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기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있나요?